

‘부산세일페스타’ 개막…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혜택 풍성

부산시 지역소비 촉진 팔 걷어 한 달간 할인쿠폰 증정 등 이벤트 동백몰에 ‘부산 전용관’ 운영

부산시가 6월 한 달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을 연계한 종합 소비 촉진 이벤트 ‘부산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 예산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목표로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 골목상권·대학가 상권 소비 축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전통시장 판매촉진 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네이버, 지마켓, 11번가와 동백몰에 ‘부산 전용관’을 운영하며 부산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10~2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차는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간, 2~3차는 8월과 추석 연휴에 각각 운영된다. 전용관은 연말까지 운영되며 식품, 생활·주방용품, 패션 잡



부산세일페스타 포스터

/부산시

화 등을 취급하는 부산 소상공인들이 입점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수비벡스코 상생마켓 위드 부산푸드필름페스타’가 열린다. 2025 부산푸드필름페스타와 연계한 이 행사는 상생 물품 판매전, 골목영화관, 상권 홍보 팝업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시그니처 제품 및 식음료 패키지를 한정 판매한다.

6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부산대

역 1번 출구 부산대자율상권에서 ‘부산대상권 리부트 프로젝트 - 부대 앞으로!’가 개최된다.

부산대학교 학생회와 동문회가 참여하는 이 행사는 레트로 콘셉트로 진행되며 ‘리턴 투 시계탑 광장’ 주제의 야외 맥주 광장과 세대공감 콘서트 ‘부락’이 펼쳐진다.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10~30% 할인 상생쿠폰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2일부터 14

일까지 부산진시장, 동래시장, 국제시장 등 82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3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을 환급하며 1인 1일 최대 1만원, 행사 기간 총 3만원 한도로 운영된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수영팔도시장과 북이있는 덕포시장에서 특별 판매 촉진 이벤트가 열린다. 수영팔도시장은 미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형 미식 공간으로, 북이있는 덕포시장은 다문화 감성 콘텐츠와 결합한 글로벌 소비 축제로 꾸며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6월 한 달 동안 시민 모두가 즐기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부산세일페스타가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안동시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사업 본격화

안동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1955년 이전 출생자(만 70세 이상)이며, 만 70세 도달 예정자의 경우 생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사전 발급이 가능하다.

교통복지카드는 11일부터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이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 발급은 불가하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목포시

대반동 해양친수시설 전면 개방

전남 목포시는 대반동에 조성된 해양산책로, 친수광장, 낚시터 등 해양친수시설을 전면 개방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목포 대반동권역은 2024년 연안정비와 스카이라인 확장에 이어 올해 수제선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떠오르는 해양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목포 바다의 대부분은 국가관리구역으로 낚시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이번 대반동 낚시터 개방은 낚시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달성군

‘참 좋은 일자리 만남의 날’ 개최

달성군은 오는 1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5년 달성군 취업박람회 ‘참 좋은 일자리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대표 우수 기업 30여 개사가 참여해 생산직과 관리직 등 총 26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지난 3월 달성군과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고려인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고려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대구=김준한 기자

광주시, 1인당 148만원 빛졌다

지방채 2조 돌파… 채무비율 23%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에 근접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고 채무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광주시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020년 1조원을 돌파한 후 5년 만인 2025년 2조원을 넘어섰다.

2025년 4월 행정안전부의 광주시 주민등록 인구 140만827명으로 환산하면, 시민 1인당 147만7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2024년 결산 기준 채무비율이 23.10%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에 근접한 수치다. 서울 21.5%, 대구 19%, 부산 18.8%, 울산 13.06%, 인천 12% 등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사업의 경우 지방채 발행시 별도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광주시의 채무비율은 18.79%까지 낮아지긴 한다. 하지만 장기미집행공원 매입 사업 관련 지방채를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8%에 그쳐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58.3%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단순한 지출 통제를 넘어 재정 체질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 ‘저출생 극복 모니터링단’ 활동

‘저출생과 전쟁’ 150대 과제 평가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제안하고 ‘저출생과 전쟁’ 150대 실행 과제를 평가할 ‘저출생 극복 도민 모니터링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저출생 대응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북도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위해 지난 5월 모집을 완료했다. 도내 16개 시·군에서 미혼 남녀, 예비부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도민 57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1990년대생이 32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주요 정책 대상층의 참여도가 높았다.

모니터링단의 주요 활동은 6월부터 10월까지 신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150대 과제에 대한 수요자 시선의 평가 등이다.

도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오프라인 회의와 정책 자료집 배포 등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활동을 지원한다. 첫 전체 회의는 육아와 직장생활 등 일정상 평일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말에 가족 동반이 가능한 현장 간담회 형식으로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 모니터링단은 지자체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며 “전문가의 정책 분석을 병행해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모곡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경주시 국비 44억 등 67억 투입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모곡권역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6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모곡권역에는 총 67억 원(국비 44억 원 포함)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역 맞춤형 어촌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고아라 해변 활력센터 조성(건강증진실, 어르신 돌봄 공간 등) 40억 원 ▲마을정주여건 개선(마을회관 및 마을안길

정비 등) 22억 원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억 원으로, 2026년 착수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경주시는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의 국비 지원사업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간 ▲어촌 뉴딜300사업 5개소(500억 원)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4개소(703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490억 원) ▲환동해 관상어펫 플라자 건립(202억 원)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150억 원) 등 총 2112억 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확보한 바 있다.

/경주(경북)=김진관 기자 jingon@

김해시, 상동 가마터 유물 5000점 출토

경남 김해시는 경남도 기념물인 ‘김해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분청사기 변천사를 파악할 수 있는 보존상태가 양호한 시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발굴 결과 조선 전기(1390~1480년) 가마 1기, 폐기장 1개소, 석축시설 2기, 가야 분묘 3기와 함께 분청사기와 백자 등 유물 5000여점이 출토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가마는 잔존 길이 21.7m로 연소실은 5차례 개축했고 소성실도 4차례 이상 개·보수를 진행하면서 최초 조업면에서 최후 조업면까지 바닥이 약 195cm가량 높아진 모양으로 보존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김해시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상동면은 조선 분청사기와 백자의 중요 생산지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산청군, 장당계곡 탐방행사 성황

산청군이 지리산 장당계곡에서 진행한 미개방구간 탐방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6~7일 이틀간 진행된 이 행사는 ‘2025 산청방문의 해’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하루 200여 명씩 총 400여 명의 탐방객이 참여했다.

참가자 모집 당시 높은 관심으로 조기 마감되는 등 지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이번 탐방은 덕산사 입구를 출발점으로 해 장당옛마을까지 편도 4km 코스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3시간에 걸친 트레킹을 통해 장당계곡의 절경과 지리산 깊숙이 숨어 있던 비경을 만끽하며 만족도를 높였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